

속회공과 8월 7(금)

화평의 언약과 평강의 복

■ 한 주간의 삶 나누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 조용한 기도

■ 찬송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1.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2.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히인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3.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4. 이 땅위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 후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 기도 말은이

■ 오늘의 말씀 에스겔 34장 25~31절을 함께 읽습니다.

■ 암송할 말씀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수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겔 34:25)

말씀 나누기

고대 근동에서는 지도자와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했습니다. 이상적인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쉬게 하며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 집니다. 에스겔 34장은 양 떼를 돌보지 않는 타락한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로 시작됩니다(1~10절). 동시에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겠다고 선언하시고(15절), 그분의 종 다윗을 세워 백성을 돌보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23~24절). 그 결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복과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25~31절).

하나님은 우리가 깨뜨린 관계의 틈 사이로 먼저 찾아오셔서 변치 않는 '화평의 언약'을 맺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때로 거친 들판에 홀로 남겨진 듯한 두려움을 느끼지만, 참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 삶의 불안을 잠재우십니다. 우리는 목자의 보호 없이는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는 언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며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길 때, 갈등과 두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누립니다.

말씀행하기

1. 묵상질문

- 1)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면 그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나요?(25-29절)
- 2)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 '사람'이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31절)

2. 삶에 적용하기

- 1) 요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 2)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 중보 기도

1. 각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 진행하는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또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도들의 영육이 쉼과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2. 20세기 초 튀르키예 인구 중 약 20%를 차지했던 기독교 인구는 오늘날 약 0.2%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그 땅의 교회가 다시 부흥의 꽃을 피우도록 기도합니다.

■ 헌금, 찬양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1. 내 평생에 가는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2.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3.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정하리라
4.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후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 마침 기도

주님의 기도(서로를 축복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